

대중문화에 나타난 춘천의 이미지 고찰

A Study of Chuncheon's Image in Popular Culture

이주영^{••}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 나타난 춘천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춘천의 다양한 이미지와 가치를 논하였다. 춘천은 과거 청춘과 낭만의 도시로서 대중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였다. 이러한 춘천의 이미지는 2000년대까지 TV드라마, 대중가요, 연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춘천은 대중문화장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청춘과 낭만의 이미지는 여수와 경쟁구도를 갖게 되었으며, 드라마 속 촬영지는 춘천임에도 대중들에게는 다른 도시로 인식하게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변화하는 춘천의 이미지는 영화 <춘천, 춘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화에서 과거 춘천의 낭만적 감수성은 불륜 커플로 인해 변질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춘천 토박이 청년은 과거 춘천의 이미지와 결별한다. 음악계에서는 비교적 춘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동시대 춘천의 어둠을 모습을 이야기하는 노래도 있으나, 춘천을 매력과 위안의 의미를 가진 도시로 노래하기도 한다. 단, 춘천 출신 가수의 경우에는 춘천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에 좌절하지 않고 춘천 시민과의 연대를 꿈꾸며 춘천의 부활을 노래한다.

춘천은 이렇듯 2010년대 대중문화장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는 춘천이라는 곳이 청춘, 사랑, 낭만 등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정지된 곳이 아닌 여러 의미체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도시임을 의미한다. 대중문화는 춘천의 이 다양한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미디어 안에 담아내며 춘천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완료가 아닌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춘천은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한 도시로서 대중들에게 자리할 것이다.

핵심어 춘천, <춘천, 춘천>, 가수 춘천, 김산돌, 소보

- 차례**
1. 변화하는 춘천
 2. 과거와 결별하는 춘천
 3. 재회/부활의 춘천
 4. 춘천, 다시 쓰기

1. 변화하는 춘천

행정구역상으로 분류된 대한민국의 시는 총 75개이다.¹ 각 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 브랜드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²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을

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2025.7, 4쪽.

² 「유네스코 도시' 순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나서」, 『세계일보』, 2022.1.27; 「천년·황금·정원도시'...경주시 10대 뉴브랜드 알린다」, 『노컷뉴스』, 2023.11.8; 「부산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동아일보』, 2026.4.27; 「용인 시 미래 비전' 담은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 공개」, 『시사저널』, 2025.9.11; 「폭삭 속았수다'가 보여준 제주, 이제 K-콘텐츠 산업으로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2026.5.4.

대표하는 유산과 상품,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들이 해당 시를 이미지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단, 경주시의 불국사·나주시의 배·논산의 군사 등이 아닌 어떤 특정 감성이 이미지화되어 다가오는 시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춘천시이다. 물론 춘천시도 닭갈비·막국수·청평호·소양강댐 등 도시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가지적 상품 가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춘천은 이 외에 대중들에게 ‘청춘’, ‘낭만’, ‘여행’ 등³ 감성의 영역을 상기시키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⁴

1980~90년대 춘천시의 강촌은 대학생들의 ‘MT 성지’로 불렸다.⁵ 이때의 통일호와 비둘기호 안은 청춘들의 낭만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이후 “젊음의 종착지 ‘춘천역’”⁶으로 향하는 열차이자 “꿈과 열정이 있는 젊음을 상징”⁷하는 ‘ITX-청춘靑春’은 그 당시 풍경의 현재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춘천시가 해당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데 있어 대중문화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가 여수시를 낭만과 청춘의 도시로서 “전국적인 청춘 여행지로 각광받도록 만”드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⁸ 20대의 김현철이 불렀던 〈춘천 가는 기차〉(1989)는 춘천을 청년 시절 “그리운 사람”과 나눴던 사랑과 낭만의 여행지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외에도 춘천은 대중문화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시이다. 대학가요제(MBC), 해변가요제(TBC)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강변가요제(MBC, 1979~2001)

의 경우,⁹ 춘천시의 남이섬 및 중도유원지 등에서 개최되어, MT의 성지·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와 함께 1980~90년대 춘천에 청춘의 이미지를 자리하게 했다. 한편 TV드라마의 경우는 최고 시청률 65.8%를 기록한 〈첫사랑〉(KBS, 1996), 2000년대 일본 내 한류열풍의 일으켰던 〈겨울연가〉(KBS, 2002) 등이 춘천시를 사랑, “낭만적 정서를 구축하고 확장하는”¹⁰ 장소로 이미지화하는 데 기여했다.

춘천과 대중문화를 연결한 주요 선행 연구에서도 전술한 춘천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발표된 〈춘천댐 사공〉, 〈강촌에 살고 싶네〉, 〈소양강 처녀〉 등의 가사 분석을 통해 춘천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이상적 낙원 등의 이미지로 그려진다.¹¹ 아울러 〈겨울연가〉의 주요 배경지를 관광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논의에서도 춘천의 남이섬은 과거 낭만과 청춘의 장소로서 여전히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대중문화에 나타난 춘천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가운데 이주라의 논의는 본 연구에 많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춘천을 주된 배경으로 삼은 독립영화 세 편인 〈뭘 또 그렇게까지〉(전계수 감독, 2010), 〈다른 길이 있다〉(조창호 감독, 2014), 〈춘천, 춘천〉(장우진, 2016) 등이 기존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살폈다.¹³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이기도 한 〈춘천, 춘천〉의 경우, 일상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공간(1부)이자 일탈의 불륜 공간(2부)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고는 이 의견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작품이 일상의 회복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춘천의 이

3 이주라는 춘천시가 사회적 담론장 안에서 ‘청춘-여행-낭만-사랑’의 계열체로 유통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주라, 「2010년대 이후 독립영화에 나타난 춘천 표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66, 우리어문학회, 2020.

4 춘천시와 비슷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시로는 여수시가 있다. 여주시의 경우, ‘낭만’ ‘청춘’ 등의 이미지로 유포되는 시로서, 해당 이미지만 봤을 때에는 춘천과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다. 「바다를 품은 낭만과 힐링의 도시」, 『동아일보』, 2026.4.2;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 『서울신문』, 2026.2.5.

5 「‘청춘 일번지’ 강촌, 다시 살아나」, 『서울신문』, 2026.3.9.

6 「ITX-청춘, 젊음의 종착지 ‘춘천역」, 『이투데이』, 2022.3.16.

7 「경춘선 급행열차 ‘ITX-청춘’으로 불린다」, 『아주경제』, 2011.11.16.

8 「대중가요, 시대의 ‘그곳’을 노래하다」, 『경향신문』, 2014.12.5.

9 「TV 젊은이프로 너무 대학생 위주」, 『동아일보』, 1981.10.07.

10 김남석, 「〈겨울연가〉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의 문법과 자아 발견의 서사」,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9쪽.

11 이학주, 「춘천지역의 대중가요를 통해 본 노랫말쓰기와 관광문화콘텐츠의 상관성」, 『인문과학연구』 6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12 권유홍·손대현, 「TV 드라마 촬영지의 포스트모던한 관광체험: 미니시리즈 ‘겨울연가’의 촬영지 남이섬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28, 한국관광학회, 2004.

13 이주라, 앞의 글, 2020.

미지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보여준 작품으로 논하고자 한다.

춘천에 대한 기왕의 이미지로부터 유리된 상황은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중문화는 꾸준히 춘천시를 청춘과 낭만, 여행의 도시로서 의미화하고 있었다면, 대중문화를 벗어난 대중들의 시선은 이와 같은 춘천 이미지를 비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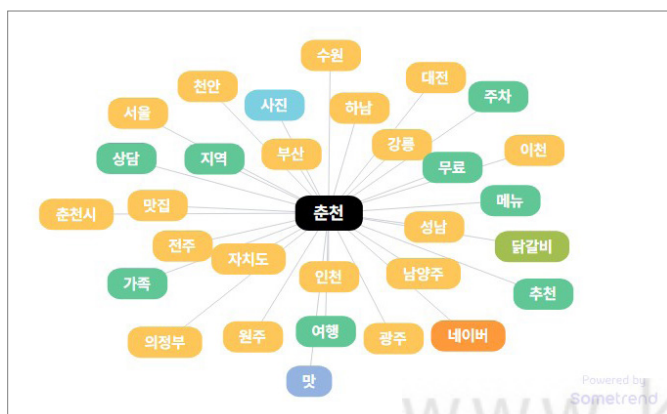
<2005.04.21~2006.04.21>



<2015.04.21~2016.04.21>



<2025.04.21~2026.04.21>



<2026.03.21~2026.04.21>

빅카인즈와 빅데이터 사이트인 썸트렌드를 활용하여 2005년·2015년·2025년(빅카인즈) 및 최근 한 달간(썸트렌드) ‘춘천’의 연관어를 분석하면, 춘천은 앞서 대중문화장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미지 중 ‘여행’ 외에 청춘과 낭만, 그리고 사랑 등을 환기할 만한 연관어를 발견하기 힘들다.¹⁴ 오히려 춘천은 대중들에게 낯선, 인근 지역, 정당 및 관련 인물 등 현재의 삶과 밀접한 지역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춘천은 여전히 대중문화장 안에서 청춘과 사랑 등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단, 과거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일례로 2024년 tvN에서 방영한 <선재 업고 튀어>의 경우 춘천대교 등 춘천 내 장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앞서 <첫사랑>, <겨울연가> 등에서 보여준 춘천이라는 도시를 전경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1화부터 서울의 일기예보를 삽입하여 공간적 배경을 서울로 인식 및 착각하게 한다.¹⁵ 그런 점에서 춘천은 대중문화 안에서 과거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그때/거기와 다른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대중가요 등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 안에서 변화의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춘천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춘천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제목에서부터 ‘춘천’을 ‘전경화’한 지금의 대중문화는 청춘, 낭만, 사랑 등 과거의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서 지금/여기의 춘천을 그려내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오히려 기존의 이미지로부터 결별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발견되고 있다. 대중문화에

14 이주라 또한 그의 연구에서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춘천의 연관어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춘천을 ‘관광, 먹거리,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결과값을 내놓았다. 이주라, 위의 글, 66~68쪽. 허나 본고에서 다시금 분석한 결과, 춘천은 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공존하는 도시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15 이는 드라마 갤러리 사이트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한강대교가 아니라 춘천대교임”, “한강 아니었구나”, “진짜 뜬금없네”, “전혀 몰랐어” 등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디씨갤러리 <선재 업고 튀어>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lovelyrunner&no=44553>

나타난 이러한 춘천의 다시 쓰기 작업은 춘천을 청춘 및 그들의 사랑을 낭만화한 단일 이미지의 도시가 아닌 과거와 마주하되 현재의 춘천으로서 호흡하는 도시로 그려내는 동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 춘천은 대중문화장 안에서 현재의 곤란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그려진다.

2. 과거와 결별하는 춘천

〈춘천, 춘천〉(장우진, 2018)은 청춘을 중심으로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영화이다.¹⁶ 작품은 ITX-청춘 내 풍경으로부터 시작한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열차, 지정석이 아닌 복도에 있는 간이 의자에 춘천 토박이 청년 지현과, 서울에 사는 중년의 불륜 커플 남성 홍주와 여성 세랑이 앉아 있다. 해당 장면은 일견 과거 춘천이 갖고 있었던 여행의 이미지를 환기시키지만, 춘천에 사는 청년 지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춘천행은 정주와 여행/이동을 교차한다. 1부와 2부로 나뉘 에피소드 방식으로 전개되는 본 작품은 춘천을 기존의 이미지인 ‘여행’이 아닌 ‘정주’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한다.

지현에게 있어 춘천행은 청춘의 낭만적 여행이 아닌 그가 겪고 있는 현재적 부침의 이동 경로이다. 음악을 하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서울에서 면접을 보고 온, 허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지현의 궁극적 삶의 방향성은 그가 작품 초반 향하고 있는 춘천행이 아닌 서울행이다. 그런 점에서 지현이 향하는 춘천행은 청춘의 생존이 좌절된 현실 세계로의 복귀라 하겠다. 그 현실은 지현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춘천역에 도착한 지현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직장 때문에 서울로 향하는 친구 박정석을 만난다. 그들의 대화는 정지가 아닌 이동의 상황에서 진행된다. 현실 공간인 춘천으로 복귀하는 지현은 아래를, 서울행 기차를 타야 하는 친구는 위를 향하고 있다. 즉, 영화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가운데에 두고 마주한 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춘천과 서울을 물리적·지리적 공간성이 아닌 지현이 현재 느끼고 있는 ‘내려옴/춘천’과 ‘올라옴/서울’이라는 심상적 공간으로 시각화한다.

춘천에서도 지현에게 허락된 장소는 안정과 안락보다는 불안과 상실 등으로 그려진다. 화면 속 멀리 불빛을 쏘아내는 아파트는 지현의 공간이 아니다. 그는 어둠 속 황폐한 공터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빛과 색이 차단된, 그렇기에 영화는 지현의 검은 실루엣만을 강조한다. 그런 그가 서 있는 곳은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이다. 청춘이자 청년에게 춘천은 어둠과 미래에 대한 아슬아슬함이 놓여 있는 곳이다. 불투명한 미래, 그에 따른 현재의 불안과 막막함은 지현의 현재 상황과 만나며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춘천역에서 만난 친구의 이름을 기억 못하거나,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못한 일 등은 일상의 실수가 아닌 자책해야 하는 일이다.¹⁷

지현에게 춘천은 ‘아직’ 정주하는 공간이기에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지현은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온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지현, 그곳은 마라톤 대회로 한창이다.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선수들, 목적을 잃고 횡단보도 앞에서 방황하는 지현의 모습이 교차된다. 이때 영화는 모든 사운드를 차단한다. 방황하는 지현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처지, 음소거의 세상이다. 앞서 빛과 색에 이어 소리마저 지현으로부터 앗아간다. 이처럼 영화는 지현의 처지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감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

16 이주라는 영화 〈춘천, 춘천〉을 “춘천의 일상과 춘천으로서의 여행이 가진 의미를 교차시키면서, 일상과 여행에 나타나는 양면성과 일상과 여행의 불편하고 어색한 공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주라, 앞의 글, 85쪽.

17 권진경, 「우연과 즉흥이 빚어낸 바로 지금, 여기의 영화: 〈춘천, 춘천〉, 〈초행〉」, 『독립영화』 47,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 112쪽.

지현은 춘천의 대표적인 명소인 소양감댐을 지나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로 향한다. 유람선 내부에 지현이 앉아 있다.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람선 실내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내부로 들어오는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 외부의 여행객은 지현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들어온다. 유람선에서 나름의 온정을 베푸는 지현은 청평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비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현은 아직 청춘이기에 희망을 가져본다. 허나 그 희망의 방법론은 현실을 비껴간다.

지현은 108배라는 종교의 힘을 빌어 본다. 그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지현은 청평사에서 나오는 길, 클리셰와 같은 장면이지만 콘크리트 바닥 사이에 생명력을 가진 풀을 우두커니 바라본다. 108배에 이어 영화에서는 청춘을 향한 막연한 희망이 지속된다. 이 고문과도 같은 나아짐의 가능성은 청평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어머니의 김장 돕는 장면에서도 이어진다. 김장을 함께하는 할머니와 중년 여성들은 축 처져 있는 지현을 향해 앞으로 나아질 거라 말한다. 구체성이 결여된 이 막연한 응원, 메시지에 지현은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다.¹⁸

〈춘천, 춘천〉의 제1부는 이 웃음의 종착지를 그려내며 마무리한다. 다음 날 아침, 지현은 다시 춘천 시내로 향하기 위해 유람선에 몸을 싣는다. 어제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유람선 밖에서 실내로 들어가려는 지현은 문고리를 잡는다. 어제처럼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실내, 지현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현은 문을 열어달라고 어딘가를 향해 점프를 하며 손을 마구 흔든다. 어떤 응답도 들

아오지 않는다. 지현은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¹⁹

이어지는 장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향하기 위한 ‘춘천, 춘천’이라는 영화 타이틀이다. 스크린에 투사된 ‘춘천’이라는 어휘는 영화에서 다음 에피소드를 위한 브릿지 역할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청춘인 지현 앞에 놓여 있는 현재적 상황, 즉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 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해결해야 할 삶의 난제, 허나 어떤 도움의 손길조차 부재한 춘천에서 살아가는 청춘의 처지를 관객들이 인식하게 한다. 춘천은 과거 낭만화된 청춘과 결별한다. 단 아직 춘천을 둘러싼 과거의 이미지가 여전히 막강하게 작동되고 있기에 청춘의 낭만, 사랑과 이별하기가 아쉽다. 이에 영화는 2부를 통해 이 결별을 잠시 유보한다.

각각의 배우자가 있는 홍주와 세량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소위 불륜 커플이다. 아내와 자식으로 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 홍주,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세량은 “지쳐있”는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이 숨 쉬는 곳”²⁰이자 첫사랑과의 추억이 있는 춘천에 도착한다. 그렇기에 아직 도착한 순간에는 과거 청년 시절의 순수성,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 도착한 시간이 늦은 밤이기에 모텔을 잡았지만 불륜의 의미를 강력하게 전경화하는 잠자리는 갖지 않는다.

2부는 주로 세량의 감정선에 주목하며 전개된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온 세량은 비록 모텔에서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잘못된 행동을 벌이고 있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부에서 횡단보도 앞 방황하는 지현

18 해당 장면의 경우, 권진경은 작품에서 유일하게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 이주라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앞서 콘크리트 사이에 핀 꽃의 장면, 후술할 선상에서의 장면을 종합해서 봤을 때, 도약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막연한 응원에 가깝다. 권진경, 위의 글, 같은 쪽; 이주라, 앞의 글, 85쪽.

19 이주라는 해당 장면을 앞서 김장 장면과 함께 도약의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러기에는 지현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신 앞에 놓인 난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뿐이다. 이주라, 위의 글, 같은 쪽.

20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가사 중에서.

의 사이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었듯이, 밖으로 나온 세랑 앞에 마라톤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하다. 앞서 지현의 장면처럼 모든 사운드가 제거된다. 이때의 마라톤은 청년인 지현의 상황과 병치한 ‘목적’을 의미하기보다는 목적을 향한 정해진 ‘규칙’의 ‘경로’를 의미한다. 세랑은 춘천에서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경로로부터 ‘일탈’하였다. 정해진 루트로부터 선을 넘은 세랑, 자신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은 영화에서 ‘사운드의 제거/귀 닫음’이라는 외면과 회피로 표현된다.

세랑과 홍주는 지현과 마찬가지로 소양감덤을 지나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로 향한다. 그리고 지현처럼 세랑은 108배를 하며 과거의 순수성을 되찾고 현재 자신의 일탈을 회개하려고 한다. 108배를 마치고 이 둘은 청평사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한다. 술과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과거 청년의 시절은 현재의 일렁거리는 빛과 함께²¹ 낭만의 안줏거리가 되고 서서히 현재의 일탈로 이동한다. 영화는 이 이동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그들의 청춘, 그때의 낭만과 사랑이 술에 녹아내리는 사이, 처음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던 이 둘은 홍주가 세랑의 옆으로 앉음으로써 현실의 불륜 커플로 이동하고, 이 이동은 종착지는 다시금 이 둘을 모텔로 향하게 한다.

모텔에서 이 둘은 서로 부둥켜안는다. 단, 이 둘이 잠자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허나, 이후 홍주와 세랑은 과거 춘천에서의 추억, 그때의 청춘과 낭만,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이별한다. 그들은 다시 ITX-청춘을 타고 서울로 향한다. 청춘이 자리한 춘천이라는 과거의 낭만적 공간은 속도를 내며 빠르게 서울로 이동한다. 이 이동 과정에서 영화는

이 둘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못함을 분명히 한다. 기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이 둘 앞에 낯선 인물이 다가온다. 홍주는 세랑과 함께 있고 싶어 자신의 표에 기입된 좌석에 앉지 않고 일탈한다. 홍주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양해를 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이로써 홍주는 본래 자신의 좌석인 앞으로, 정해진 규칙과 자리로 복귀한다. 홍주는 좌석을 끝까지 뒤로 젖혀 사회적 명령을 한 낯선 인물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일탈이 허락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잠시나마 저항해본다.

서울에 도착한 이 둘은 헤어지기 전 역사 내 화장실에 들른다. 먼저 나온 홍주는 화장실 앞에서 서성인다. 딱히 세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예의상 기다려 준다. 끝내 나오지 않는 세랑을 두고 홍주는 다시 일상으로 향한다. 세랑과 홍주는 이렇게 과거 낭만화된 청춘의 추억, 그때의 사랑이 다시 부활될 수 없음을 기차 안에서의 사건과 함께 재확인하고 과거의 춘천과 결별한다.

3. 재회/부활의 춘천

영화 <춘천, 춘천>이 세대적으로 청년과 중년을 춘천에 나란히 세우고 과거 춘천이 가졌던 낭만화된 이미지와 결별하였다면, 가요에서는 과거 춘천의 낭만적 감수성을 이어오는 한편 부활과 재회를 꿈꾸는 ‘춘천 다시 쓰기’의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로다의 <춘천 Blues>, 녹우의 <춘천이니까>, 채광명의 <여름날 춘천> 등이 사랑을 중심으로 과거 춘천이란 도시가 갖고 있었던 감수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춘천을 둘러싼 기존의 감성은 외부자의 시선에서도 포착된다.

자신을 ‘서울춘놈’이라 평가한 김산들은 춘천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다.²² 그에게 춘천은 춘

21 여러 연구자들은 해당 장면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통해 둘 사이의 감정 변화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주라, 앞의 글, 83쪽; 권진경, 앞의 글, 112쪽; 채희숙, 「REVIEW」, 『2017 독립영화 쇼케이스』, 한국독립영화협회, 2017, 268쪽.

22 「인터뷰」 기타 잡고 가사에 녹여낸 강원 방랑기, 『강원도민일보』,

천이 고향인 은사의 초대로 대학 시절에 방문했던 곳이
자 팬데믹 시절 장교생활을 했던 도시이다.²³ 그때의 인
연으로 그는 춘천으로 이주하였고, 2024년 〈애막골〉, 〈대
룡산〉, 〈소양호〉 등 여섯 곡의 춘천을 담은 앨범 『춘천의
밤』을 발표하였다. ‘서울춘놈’이자 “이방인”인²⁴ 김산돌
에게 춘천은 “매력적이고 위안을 주는 도시”이다.²⁵

날은 저물어 / 땅거미 지고 / 호수에 비친 저 달이

산봉우릴 넘어 / 그늘진 내 맘을 / 비추네 아스라이

바람이 차게 부네 / 바람이 차게 부네

외로운 처녀의 / 흘날리는 소매 / 누굴 애타게 기다리나

저 철로에 올라 / 들판을 지나 / 그대 곁에 있고 싶어

바람이 차게 부네 / 바람이 차게 부네 / 바람이 차게 부
네 / 바람이 차게 부네

날은 저물어 / 땅거미 지고 / 호수에 비친 저 달이

산봉우릴 넘어 / 그늘진 내 맘을 / 비추네 아스라이

저 철로에 올라 / 들판을 지나 / 그대 곁에

있고 싶어 / 있고 싶어²⁶(강조는 인용자)

“바람이 차게 부”는 날 저문 시간, “호수에 비친 저
달”이 위로가 필요한 가사 속 화자의 “맘을 비”춘다. 마
치 〈소양강의 처녀〉의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애 순정”
을 가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를 환기하
듯,²⁷ 〈춘천의 밤〉에서의 외로운 처녀는 사랑하는 님으
로 추정되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처녀의 님을 향한 마음은 가사의 화자로 전이
되어 그 또한 사랑하는 님 곁에 간절히 있고 싶어 한다.
이방인이자 외부자인 김산돌에게 춘천은 이처럼 ‘달’,
‘땅거미’, ‘호수’, 사랑하는 님을 향한 간절함 등 서정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춘천이 쌓아
온 도시 이미지로서 김산돌이 말하고 느끼는 춘천의 ‘매
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감성은 서정적 정서로서
듣는 이를 ‘위안’하는 역할을 한다.

‘매력’과 ‘위안’으로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김산돌
의 춘천은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은 있으나, 〈춘
천, 춘천〉에서 지현이 느꼈던 춘천 청년의 무력감을 발
견하기 힘든 도시이다. 단, 춘천은 정지의 공간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도시이다. 그렇기에 이미 대
중가요에서 춘천을 이미지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춘천 가는 기차〉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
렀고 그 세월만큼 춘천의 청춘들도 변하였다. 이는 앞서
영화뿐 아니라 가요에서도 목격된다. 〈춘천, 춘천〉처럼
“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는지”, “연기 나는 청
춘 밤의 유령들” 등 가수 춘천은 청년의 어둠과 불투명
성 등 동시대의 춘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노래한
다.²⁸ 단, 흥미로운 점은 외부자의 시선에서 과거 낭만적
계열의 춘천 이미지를 확인하였다면, 내부자의 시선에
서는 앞서 주지한 춘천 청년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청춘의 열정과 춘천을 연결하는, 즉 청춘을 통해
춘천이 가졌던 지난날의 영광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춘
천 청년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해 춘천은 음악 하기가 / 어려운 도시라

고 모두 말하지 / 아쉽게도 우리 둘은 춘천 아닌 서울에서 /

2025.9.4.

23 위의 글.

24 「[인터뷰] 기타 잡고 가사에 녹여낸 강원 방랑기」, 앞의 글.

25 「서울서 부르던 ‘춘천의 밤’ 이젠 춘천서 부르고 싶어요」, 『춘천시 시정소
식지 봄내』 406, 춘천시청, 2024. [https://bomnae.chuncheon.go.kr/
contentView?contentNo=2202](https://bomnae.chuncheon.go.kr/contentView?contentNo=2202) (검색일: 2026.7.20)

26 김산돌(Kim Livingstone), 〈춘천의 밤〉, 『춘천의 밤』, 2024.

27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가사 중에서.

28 밤이 되면 저들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 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는
지(몰라 그래 몰라) / 가벼운 어둠에도 몰래 눈물 흘리던 너 / 누구의 꿈속
인지 묻지도 않고 잠드는 너 / 붉은 가로등 / 연기 나는 청춘 / 밤의 유령들
/ 발톱의 콧노래 / 바람 부는 밤 / 오래 꾸는 꿈 / 여긴 춘천 / 오랜 꿈이 석
인 이 밤 비에 젖은 노래를 / 펄펄 날리는 흰 눈. 춘천(春川)의 〈바람 부는
밤, 여기 춘천〉(2019) 전문.

아동바동 음악 하는 고향 친구

하지만 이제는 쫘 달라졌지 / 상상 마당도 생겼어 (상상
마당도) / 새롭게 떠오르는 공연의 메카 / 홍대를 향한 뜨거운
춘천의 반격 / 어디 한번 엿어보자

자 노래하자 춤을 추자 모든 것 내려놓고 / 사랑하는 나
의 동네 호반의 도시에서 / 가끔은 홍대에서 노래하지만 / 내
고향 춘천을 부끄러워 한 적은 결코 없어

앉아 있던 자리만큼 따스히 데워진 마음 / 고향 향한 이
마음을 접어두고 / 그저 노래하고 싶어 서울 땅을 밟았지만
/ 서울도 노래하기는 쉽지 않네

꿈을 찾아 떠났던 나의 모습 / 점점 잊어 가고 있어 / 그럴
때마다 여기 춘천에 와서 / 고향사람들 앉혀놓고 놀아보자

...(중략)...

자 노래해 춤을 춰 (춘천에서) / 자 노래해 춤을 춰 (춘천
에서) / 자 노래해 춤을 춰 (춘천에서) / 자 노래해 춤을 춰
(춘천에서)²⁹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은 2017년도에 발매한 소보의 『춘천歌』 앨범에 수록된 〈춘천의 아들들〉이다. 노래는 춘천의 청춘을 이야기하되,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는 영화 〈춘천, 춘천〉에서처럼 음악을 하는 청년 지현의 상황을 공유한다. 가사에 따르면 춘천은 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도시이다. 그렇기에 춘천의 청년들은 음악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춘천을 떠나 서울로 이동한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춘천을 떠나는 상황은 가사에서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춘천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다. 「2024년 춘천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구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복수응답과 주된응답 모두에서 36.3%와 21.9%로 1위를 차지했다.³⁰ 아울러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2016~2025년) 강원지역에 사는 2023세대 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였다.³¹ 춘천은 이처럼 음악만 하기 힘든 도시가 아니다. 하지만 〈춘천의 아들들〉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곤란 앞에 〈춘천, 춘천〉 지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비록 영화에서 지현의 서울행은 좌절되었으나, 이 노래 속 춘천의 청춘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서울과 홍대를 “어디 한번 엿어보”기 위해 뜨거운 “춘천의 반격”으로서 서울의 홍대로 향한다.

춘천 못지않게 “서울도 노래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런 점에서 춘천의 청춘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춘천을 청춘의 꿈을 허락하지 않는 도시로 고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있어 춘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대전이나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의 보편적 도시로 확장시킨다. 그나마 기회 수가 많은 서울에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 춘천의 청춘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나의 동네 호반의 도시” 춘천을 결코 “부끄러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춘천은 “꿈을 찾아 떠났던” 자신이 서울에서 어떤 무언가를 “잊어 가고 있”을 때마다 청춘의 꿈을 되찾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한 춘천의 청춘은 과거부터 청춘과 낭만, 그리고 그

29 소보, 〈춘천의 아들들(Feat. 전범선 of 전범선과 양반들 & 김경희 of 상상마당)〉, 『춘천歌』 2017.

30 「2024년 춘천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행복한 춘천 일자리 통계」, 춘천시, 2025, 108-109쪽.

31 「“일자리 없어요” 강원 2030 청년층 10년간 4만명 빠져나갔다」, 『강원일보』, 2026.1.30.

들의 열정이 함께했던 춘천과 재회할 수 있다.

춘천과 재회한 청년들은 그들의 자리에서만 서 있지 않는다. 자신들이 가졌던, 아등바등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실천했던 꿈을 혼자 영위하는 것이 아닌 고향 춘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꿈을 향해 세상과 부딪혀야 할 고난들이 이 청춘들 앞에 놓여 있기에 춘천의 자리를 “춘천에서” 처럼 고향 사람들 뒤에 세울 수밖에 없지만, 아울러 이 목소리 또한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듯 혼자 읊조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춘천의 청춘들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청춘으로서 춘천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자 한다. 이 연대의 실천과 청춘의 반격은 지난 세월 자신을 성장케 했던 춘천이라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들과 재회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도시로 부활케 한다. 춘천 청년들이 전개하는 춘천 부활의 작업은 개인과 청년만이 아닌 춘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향하고 있다.

4. 춘천, 다시 쓰기

본고에서는 대중문화에 나타난 춘천의 이미지를 살펴해보았다. 춘천은 대중문화장 안에서 청춘과 낭만, 사랑 등 대중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로 자리했다. 과거 춘천은 대학생들의 MT 성지이자 강변가요제의 개최지로서 청춘들을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였다. 여기에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가 기폭제가 되어 춘천은 청춘, 여행, 사랑 등 청춘과 낭만의 도시로 그 이미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후 〈겨울연가〉가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춘천은 앞서의 영광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춘천 이미지는 2010년대 이전 연극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2005년 초연을 시작으로 재연에 재연을 거듭한 김한길의 〈춘천거기〉에서도 비록 과거 춘천의 낭만성이 전경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개팅으로 만난 주미와 응덕이

라는 등장인물은 춘천 펜션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³²

춘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청춘과 낭만의 이미지는 2010년대 이후 그 화력이 약해지거나 또 다른 모습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2012년에 발표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가 공존에 히트하면서 대한민국 75개 시 중 거의 유일하게 청춘과 사랑, 낭만 등으로 이미지화되었던 춘천의 도시성은 서서히 여수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청춘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선재 업고 튀어〉에서도 춘천대교 등 춘천을 촬영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작품에서는 춘천을 시청자들에게 서울로 인식하게 한다.

영화 〈춘천, 춘천〉에서는 심지어 과거 춘천과 결별하거나 동시대 춘천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곤란을 그리고 있다. 중년의 홍주와 세랑에게 춘천은 지난날 대학생 시절 설레는 사랑의 장소가 아닌 술자리도 하고 모텔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불륜이라는 일탈을 진행케 하는 곳이다. 영화는 이 둘이 춘천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관계임을 공식화한다. 한편 서울에서의 면접을 실패한 지현은 춘천에 정주하는 춘천 청년이다. 과거 청년들이 낭만의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위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면, 동시대 청년 지현은 자신을 꿈을 펼치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좌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하는 곳이 춘천이다. 실패로 인해 돌아온 그곳은 모든 살아있는 감각들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정지와 어둠의 공간이다.

음악장 안에서의 춘천에 대한 이미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물론 가수 춘천의 〈바람 부는 밤, 여기 춘천〉에서 동시대 춘천이 겪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춘천으로 이주한 김산들의 〈춘천의 밤〉에

³² 김한길, 『춘천거기』, 평민사, 2024.

서는 과거 춘천의 이미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춘천은 영화 속 지현이 겪고 있는 좌절의 도시가 아닌, 아직 노래로 이야기할 매력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이 매력의 음악적 결과물은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춘천을 위안의 장소로 이동시킨다.

외부자의 시선이 현재의 춘천을 과거의 춘천과 연결하였다면, 내부자의 시선이라 할 수 있는 춘천 출신 가수 소보의 입장은 <춘천의 아들들>에서 춘천의 곤란들을 인정하면서 <춘천, 춘천>의 지현처럼 춘천을 좌절과 어둠의 도시가 아닌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 자신의 음악 세계펼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에는 춘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 청춘들이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어디든 힘든 곳이라면 춘천과 재회하여 고향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춘천의 가치를 부활시키는 것이 오히려 훨씬 값진 작업일 것이다.

춘천은 이렇듯 2010년대 대중문화장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는 춘천이라는 곳이 청춘, 사랑, 낭만 등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정지된 곳이 아닌 여러 의미체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도시임을 의미한다. 대중문화는 춘천의 이 다양한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미디어 안에 담아내며 춘천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완료가 아닌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춘천은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한 도시로서 대중들에게 자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산돌(Kim Livingstone), <춘천의 밤>, 『춘천의 밤』, 2024.
 김한길, 『춘천거기』, 평민사, 2024.
 소보, <춘천의 아들들 (Feat. 전범선 of 전범선과 양반들 & 김경희 of 상상마당)>, 『춘천』, 2017.
 춘천(Chooncheon), <바람 부는 밤, 여기 춘천>, 『춘천(Chooncheon)』, 2019.

2. 단행본 및 논문

- 권윤희·손대현, 「TV 드라마 촬영지의 포스트모던한 관광체험: 미니시리즈 '겨울연가'의 촬영지 남이섬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28, 한국관광학회, 2004.
 권진경, 「우연과 축흥이 빚어낸 바로 지금, 여기의 영화: <춘천, 춘천>, <초행>」, 『독립영화』 47,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
 김남석, 「〈겨울연가〉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의 문법과 자아 발견의 서사」,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유준동·신성환, 「옛 경춘선 폐역의 레트로 인문도시」,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2021.
 이주라, 「2010년대 이후 독립영화에 나타난 춘천 표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66, 우리문화학, 2020.
 이학주, 「춘천지역의 대중가요를 통해 본 노랫말쓰기와 관광문화콘텐츠의 상관성」, 『인문과학연구』 6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채희숙, 「REVIEW」, 『2017 독립영화 쇼케이스』, 한국독립영화협회, 2017.

3. 기타 자료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썸트렌드, <https://some.co.kr>
 「[인터뷰] 기타 잡고 가사에 녹여낸 강원 방랑가」, 『강원도민일보』, 2025.9.4.
 「'부산'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동아일보』, 2026.4.27.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 『서울신문』, 2026.2.5.
 「'용인시 미래 비전' 담은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 공개」, 『시사저널』, 2025.9.11.
 「'청춘 일번지' 강촌, 다시 살아나」, 『서울신문』, 2026.3.9.
 「"일자리 없어요" 강원 2030 청년층 10년간 4만명 빠져나갔다」, 『강원일보』, 2026.1.30.
 「2024년 춘천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행복한 춘천 일자리 통계」, 춘천시, 2025.
 「ITX-청춘, 젊음의 종착지 '춘천역」, 『이투데이』, 2022.3.16.
 「TV 젊은이프로 너무 대학생 위주」, 『동아일보』, 1981.10.7.
 「경춘선 급행열차 'ITX-청춘'으로 불린다」, 『아주경제』, 2011.11.16.
 「대중가요, 시대의 '그곳'을 노래하다」, 『경향신문』, 2014.12.5.
 「바다를 품은 낭만과 힐링의 도시」, 『동아일보』, 2026.4.2.
 「서울서 부르던 '춘천의 밤' 이젠 춘천시 부르고 싶어요」, 『춘천시 시정소식지 봄내』 406, 춘천시청, 2024.
 「유네스코 도시' 순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나서」, 『세계일보』, 2022.01.27.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2025.7.
 「'천년·황금·정원도시'...경주시 10대 뉴브랜드 알린다」, 『노컷뉴스』, 2023.11.8.
 「'폭삭 속았수다'가 보여준 제주, 이제 K-콘텐츠 산업으로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2026.5.4.

Abstract**A Study of Chuncheon's Image in Popular Culture**

Yi, Joo-Young |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images and cultural meanings of Chuncheon through its representations in popular culture since the 2010s. Traditionally, Chuncheon was associated with youth, love, and romance, an image repeatedly reproduced in television dramas, popular music, and theater until the 2000s. Since the 2010s, however, this familiar image has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 as popular culture has portrayed the city through more diverse and sometimes conflicting perspectives.

This shift is particularly evident in films, where Chuncheon's romantic image is disrupted by narratives of infidelity or by young residents confronting uncertain futures and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city's established identity. Popular music presents a broader spectrum of representations. While some songs depict the darker realities of contemporary Chuncheon, others portray it as a place of attraction, comfort, and emotional refuge. Musicians from Chuncheon, in particular, acknowledge the difficulties facing the city while simultaneously expressing solidarity with its residents and imagining possibilities for renewal.

These representations demonstrate that Chuncheon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conventional imagery of youth and romance. Rather, it has emerged as a dynamic cultural space in which diverse meanings, emotions, and experiences are continuously produced and negotiated. Popular culture captures these changing dimensions of the city through different media and reconnects Chuncheon with the public in new ways. Chuncheon can therefore be understood as an open and evolving cultural text whose meanings remain subject to continuous reinterpretation.

Keywords Chuncheon, *Chuncheon*, *Chuncheon*, Singer CHUNCHEON, Kim Livingstone, Sobo
